



#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 되심<sup>1)</sup> (겔 8-11장)

한동구(평택대)

### ▶ 구약성서 연구와 해석 ◀

- 한동구(평택대)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되심(겔 8-11장)
- 이일례(서울신대)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유일신개념과 신정론: 시편 4편을 중심으로
- 정중호(계명대)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 김창주(한신대) 성서일과로 본 시편의 활용에 관한 모색-
- 최종원(서울신대)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 소형근(서울신대)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 1. 문제의 제기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포로기 동안, 즉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성전 부재의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다(왕하 25:9).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제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1) 그 동안 에스겔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제16집(2004년 4월), 215-244;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 에스겔 47장 13-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제18권 2호 통권 44집(2012년 6월), 58-85;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목시'(하존 사브)의 의미와 기능 연구 -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0권 3호 통권 53집(2014년 9월), 198-222; 임시영, "에스겔 연구사 -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0권 3호 통권 53집(2014년 9월), 281-324. 등이 있다.

이송되었다(왕하 25:13ff.).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유다 내에서 다른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신명기 개혁운동의 결과 예배의 중앙 통일화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예레미야 41장 5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80명이 재물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인들의 심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전히 유일한 합법적인 성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인 제의는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었으며,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기원전 587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머물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은 아주 달랐다. 이 자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포로로 이국땅에 끌려와 있음으로 성전까지는 도달할 수도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1년에 세 번씩 성전을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출 23:17; 34:23; 신 16:16; 참조 왕상 9:25)은 포로민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규정이 되고 말았다. 포로민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귀족, 즉 정치 엘리트에 속하는 자들로서(참조 왕하 24:14ff.; 25:11f.), 그들에게 성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활공간 인근에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다. 이들에게는 성전을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따라서 포로민들에게 포로기는 성전 부재의 시대였다. 포로기 동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물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도 성전 파괴와 성전 상실은 종교 실행상 또 신학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포로기 동안 활동했던 다양한 신학자들에게 이러한 성전 부

2) 사실 존재할 수도 없었다. 유다 내 다른 성전이 있다 해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것이다.

재의 상황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주어졌다. 실재 포로기와 포로 후 초기의 적지 않은 문헌들에서 성전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 예언자도 이러한 포로기적 상황, 즉 성전 부재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신학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예를 에스겔 11장 16b절의 메시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나, 포로기의 성전 부재의 상황 하에서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성전 부재의 현상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대체 신학으로 이해 할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성전 부재의 시대에 에스겔의 대체 신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성전 부재의 시대가 야기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에스겔의 이해를 연구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 에스겔 11장 16b절의 해석

### 1) 문제의 제기

에스겔 11장 16a<sup>γ</sup>절에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나라들로 멀리 내쫓았으며, 또 여러 땅으로 흩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포로의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포로의 현실은 야훼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3) 참조. A. Ruwe, “Die Veränderung tempeltheologischer Konzepte in Ezechiel 8–11,” B. Ego/A. Lange(Hg.), *Gemeinde ohne Tempel. Community without Temple*,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118;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9), 3–18. 계속하여, 강성열, “겔 8–11장: 신앙적 탈선과 심판 그리고 구원,”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에스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주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89–106.

아니하였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계속하여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였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6b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왔던 나라들에서 잠깐 동안만 성소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

야훼께서는 이방나라로 흩어진 포로민들에게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된다는 특이한 약속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겔 11:16b). 많은 주석자들은 이 약속과 연결하여 성전 부재의 시대인 포로기에 제의 대신에 행한 비제의적 예배 형태를 가상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이미 탈쿰 요나단에서도 나타난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회당 건물(Synagogengebäude)을 주었다. 회당 건물들은 내 성전에 비해 매우 다양하였다. ....”<sup>4)</sup>

현대 주석자들은 대안 성전으로서의 회당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쟈멀리(W. Zimmerli)는 이 구절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해진 예배의 위기적 형태를 생각하였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sup>5)</sup> 이 위기적 형태와 관련하여 아이히로트(W. Eichrodt)는 “율법의 계속적인 교육이나 안식일과 할례의 준수, 기도소에서의 예배모임(시 137:1-2), 신실한 제사장들이 훌륭한 조연자와 교사로서의 활동하던 집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야훼의 예언자들이 과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6)</sup>

알렌(Leslie C Allen)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했다: “70인역 예레미야 29장 12-14절에 근거하여 공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며/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을 때/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리

라’”<sup>7)</sup> 한편 폭스(H. F. Fuhs)는 에스겔 11장 16b절을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했다.<sup>8)</sup>

그러나 루베(A. Ruwe)는 이러한 해석들은 에스겔 11장 16절의 의미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에스겔 11장 16절에서는 양자택일적 예배형태나 이와 유사한 것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말의 의미를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에스겔 11장 16절의 문장이 문자적 의미에서 분명하게 의도하는 바는 야훼 자신이 스스로 포로민들의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이다.<sup>9)</sup>

에스겔 11장 16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두 질문은 필수적이다. 첫째, 포로민들에게 야훼의 임재가 어떻게 성전으로 실현되는가하는 문제와 둘째 히브리어 메아트(מֵאֵר)의 의미 해석의 문제이다.

## 2) 야훼의 임재에 대한 ‘성전 신학’적 해석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형성된 표현들이 에스겔 8-11장의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다. 예루살렘에 남아 야훼의 성전에서 범죄하는 자들의 불평(“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겔 8:12b; 겔 9:9b)과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주장과 이를 인용한 예언의 말씀(“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겔 11:3;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11:15b)은 전통적인 ‘성전신학’의 입장에서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4) A. Ruwe, “Die Veränderung tempeltheologischer Konzepte in Ezechiel 8–11,” 5 재인용. 그린베르그도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참조 M. Greenberg,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 Garden City, New York 1983), 220.

5) W. Zimmerli, *Ezekiel 1-24*, (BK 1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250.

6) 아이히로트, 『에제키엘』 (국제성서주석 23;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18-181.

7)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상』 (WCC 주석; 서울 솔로몬, 2009), 335.

8) D. Baltzer, *Ezechiel und Deuterocesaja* (BZAW 121;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34-35; H. F. Fuhs, *Ezekiel, 1-24* (NEB 7; Würzburg: Echter Verlag, 1984), 62.

9) A. Ruwe, “Die Veränderung tempeltheologischer Konzepte in Ezechiel 8–11”, 5.

### (1) 남은 자들의 주장 I(겔 11:15)

여기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두 문장을 담고 있다: 첫째: “너희는 야훼에게서 멀리 떠나라!”(겔 11:15bβ)와 둘째: “우리에게 그(=야훼)가 그 땅을 주어 소유하게 하셨다”(겔 11:15by). 전자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를 평가하는 말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며, 그래서 죄 값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로서, 징벌을 받을만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여긴 것 같다. 후자는 그러므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에스겔 11장 16절과 17절에서 두 차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전적으로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에스겔 11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라는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모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로서 스스로 의인이라 판단하고, 이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다는 인간의 편에서 내린 거짓된 확신(겔 11:15by)에 정면으로 맞선다.

다음으로, 에스겔 11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라는 말씀의 서두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야훼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 또 야훼께서는 이 비극적 역사적 사실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야훼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야훼께서 이방 나라들로 내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이것은 내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주장(겔 11:15bβ)에 정면으로 맞선다.

### (2) 남은 자들의 주장 II(겔 11:3)

에스겔 11장 2-13절에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에스겔 11장 3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말을 야훼께서 인용하여 이를 심판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자들(=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 인용문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에스겔 11장 2절에서 언급한 바, 인용문은 “죄악을 생각하는 자들”의 말이며, “악한 꾀를 계획하는 자들”의 말이라는 점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이다.

이들이 어떤 계획을 도모하는지 분명치 않다. 강성열은 “불법적 부동산 탈취”<sup>10)</sup>로, 알렌은 “탐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집을 강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들은 다른 주민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찬탈함으로써 건물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다(참조 겔 11:3a)는 입장이다.<sup>11)</sup> 그러나 아이히로트의 재구성에 따르면, 이 구절을 “광범위한 폭력적 지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했다. 이 폭력적 지배 형태에 ‘불법적 부동산 탈취’도 포함된다. 그는 에스겔 11장 1절의 “25명의 지도자들”은 “영향력 있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며, 예루살렘 도성의 평화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바벨론의 위성 정부인 시드기야 정권의 비호 아래, 행정력을 장악한 일종의 “인민 평의회”였다고 보았다. 이들은 친애급과를 포함한 옛 귀족 계층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sup>12)</sup>

10) 강성열, “겔 8-11장”, 99.

11) 알렌, 『에스겔 상』, 328.

12) 아이히로트, 『에제키엘』, 169-170.

에스겔 11장 3a절(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므로)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박철우는 “새로이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게 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집들을 건축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고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말”이라고 해석했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어지는 문장과 조화되기 어렵다. 아이히로트도 이 말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거들먹거리는 말’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한다: 이들은 “(아마도 기원전 597년 이후) 예루살렘의 재건과 전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성공적으로 활동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였다.”<sup>14)</sup> 그는 이 말을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권력을 장악한 위성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말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 11장 3bβ절과도 잘 조화된다.

에스겔 11장 3ba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마에 비유하였다(참조 겔 11:3, 7, 11; 24:3, 4-5, 6, 11). 여기에서는 가마가 긍정적 의미, 즉 자신들을 안전하고 튼튼히 지킬 보호막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성전 신학 및 시온 신학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보여진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만한 의로운 자로 자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가마’는 다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5)</sup>

에스겔 11장 3ba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새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고기에 비유하였다. 여기에서 자신들은 “최상품의 고기”로 잘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반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열등하며, 저주받은 죄인으로 간주하였다(겔 11:15).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마

13) 박철우, 『에스겔』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23-224.

14) 아이히로트, 『에제키엘』, 169-170.

15) 가마는 백성을 착취하는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사무엘상 2장 14절에서는 실로 성전의 가마에서 엘리제사장 아들들의 범죄를 묘사한다. 창세기 19장 28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마에 상징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는 북쪽에서 침략해 오는 바벨론을 “끓는 가마”에 비유하였다.

땅한 자들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이들의 내면의 생각을 직시하고(겔 11:5b), 이들의 범죄 행위들의 고발과 함께(겔 11:6), 고기와 가마에 대한 이중적 해석을 내렸다. 이들이 무수한 살인과 폭행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온통 부정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범죄의 가마가 되었음을 지적한다(겔 11:7). 따라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온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부정의 대가로 처벌되어야 할 자들임을 분명히 했다.

### (3) 남은 자들의 주장 III(겔 8:12)

팔레스타인에 남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판단 배후에는 전통적인 ‘시온 신학’이 놓여있다. 이러한 ‘시온 신학’의 배경 하에서 나온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또 다른 주장들을 에스겔 8-11장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에스겔 8장 7-13절에서 야훼께서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성전 신학적(시온 신학적) 이해에 근거한 논거를 인용한다: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는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baβ)<sup>16)</sup>

이러한 성전 신학적(시온 신학적) 주장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597년의 제 1차 포로 사건에 있다. 기원전 601년 애굽 국경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이로 인해 상호의 전력이 손실하였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을 본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존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오래지 않아 여호야김을 처벌하였다.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항복하였다. 여호야킨과 도시의 고위층의 상당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것이 제 1차 바벨론 포로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

16) 에스겔 8장 12절에서 상반절의 범죄행위는 하반절의 이유(yk) 설명에 근거한다.

기야를 왕으로 삼았다.

바벨론의 침공과 제 1차 포로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지도부는 권력을 상실하고 몰락했다. 이 때 “시드기야와 그와 더불어 지도부를 구성한 벼락 출세자들은 전적으로 바벨론에 의존하였다. 이에 반하여 지금은 권력을 상실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과거 지배계층은 애굽에 근거하여 상황 반전을 꾀하고자 하였다.”<sup>17)</sup>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추종하며 동시에 애굽의 종교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다(겔 8:10). 이 참혹한 패배의 상황에 직면하여, 유다의 귀족들 중 일부는 거대 제국의 신들에 비하여, 지역 신들은 자신들에게 참혹한 패배의 운명을 안겨다 준 허약한 신으로 보고,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는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 부록: 요시아 왕의 사후부터 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

요시아 왕이 죽고(기원전 609), 애굽 왕 느고는 계속하여 앗수르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로 진군하는 동안, 유다에서는 암하 아레츠(אֲחַזְרָאֵל)에 의해 여호아하스(살룸)를 왕으로 삼았다.<sup>18)</sup> 그러나 애굽 왕 느고는 그를 그의 총사령부로 소환하여 실각시키고 애굽으로 추방되어 거기서 죽었다.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엘리아킴)을 왕으로 임명하였다. 유다에 부과된 벌금을 왕실이나 성전 금고에서 내지 않고, 국민들에게 특별세<sup>19)</sup>를 부과하였다(왕하 23:35). 이로서 백성들은 두 진영

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느고의 원정은 실패하였다. 바벨론은 갈그미쉬(Karke-misch)에서 605년에 애굽을 대파한 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팽창해왔다. 이로 인하여 유다에서는 “올바른 외교 정책”의 문제로 끊임없는 논쟁에 빠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애굽에 예속한 후에(기원전 609-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은 60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속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 601년 애굽 국경에서의 전투에서 상호의 전력이 손실되었고, 이는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애굽에 의존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빠지게 하였다.

느부갓네살의 처벌이 오래지 않아 가해졌다. 기원전 598년 12월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직접 침공했고, 그 달에 여호야김은 죽었다.<sup>20)</sup>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에 의해 항복하였다. 여호야킨과 도시의 고위층의 상당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제 1차 포로).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sup>21)</sup>

정치적 입장은 동시에 신학적 입장과 동일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환상에 빠진 시소 외교정책을 경고했다(렘 4:30; 13:20-22). 그리고 도시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렘 13:18f.).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봉신왕으로 세운 후에, 594년에 바벨론의 남서부에 반란 운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17) 아이히로트, 「에제키엘」 158.

18) 게오르크 포오르/방석종(역), 「이스라엘 역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6), 237. 원제는 G. Fohrer, *Geschichte Israels*, (Heidelberg: Quelle & Meyer, 1990)는 암 하 아레츠에 의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살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를 ‘친애굽적’이라고 했으나, 이는 역사적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신명기 개혁운동의 계승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9) 헤르만/방석종(역), 「이스라엘 역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1), 330-331. 원제는 S. Her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Chr. Kaiser, 1973, 19802)에서는 왕하 15장 20절(왕하 23:35)에 근거하여, 이는 일종의 인두세로 각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지 않고, 그의 능력에

따라 지불하도록 했다.

20) 존 브라이트는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암살의 가능성도 제기한다(449). 참조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21) 참조 라이너 알베르츠/강성열(옮김), 「이스라엘 종교사 I」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537-539. 원제는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ATDE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에서는 반 바벨론 바람이 불었다. 여기에 주변의 소도시 국가들도 참여했다. 여기에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6개국이 참여하였다.<sup>22)</sup> 당시 유다에서는 민족주의적 종교적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바벨론의 지배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애굽과의 군사동맹을 맺어 전열을 정비코자 했다.

민족주의적 - 종교적 집단에 의해 선동되어 포로민들 가운데 에도 곧 귀향한다는 희망이 꺾여 있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을 권고하고, 바벨론 (적)을 위해 기도할 것을 충고했다(렘 29:1-7). 이 편지에 대해 분명한 반대가 있었다. 예루살렘 제사장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행동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렘 29:24-29).

기원전 591년 애굽 왕 프살메티히 II세는 팔레스타인 원정을 계획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족주의자들과 친애굽적인 인사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나약한 시드기야는 충격을 받았다. 589년에 애굽 왕 호프라가 왕이 되어 팔레스타인을 원정하여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연합하도록 강압하였고, 마침내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동조하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속히 응징하여, 589년에서 587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애굽의 원병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애굽의 원병을 쳐부수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을 함락 시켰다.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제 2차 포로).

그들은 애굽 신들의 마술적 힘에 의지하여 복위를 꾀하였으나, 이는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도 섬겨서는 안된다는 십계명 제 1계명을 범하게 된 것이다.

#### (4) 남은 자들의 주장 IV(겔 9:9)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한다.<sup>23)</sup> 이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에스겔 9장은 세 부분으로 세분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의하시고 이를 실행할 사명자들에게 명령을 하달한다. 여기에서는 야훼의 명령과 사명자의 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겔 9:1-2). 둘째, 야훼께서 심판의 실행을 명령한다(겔 9:3-7). 먼저, 야훼께서 예언자에게 심판에 앞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이마에 표를 하여(겔 9:4b), 심판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한다(겔 9:6aβ). 그리고 심판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성전도 예외 없이, 아니 오히려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셋째, 심판을 면하기 위해 예언자는 중보기도를 드린다(겔 9:8-11). 이에 반하여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술하여 심판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야훼의 사명자들이 심판을 온전히 실행하였고 보도함으로 심판 이야기는 종결된다.

#### (부록) 에스겔 9장의 구조

시작단계	겔 9:1-2
삽입구	겔 9:3a
실행단계	겔 9:3b-7
구제단계: 중보기도	겔 9:8-11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면서, '특이한 불평'을 인용하였

22) 밀러/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는 "바벨론에서 소란했던 기원전 596-594에 실제 반란을 일으킨 나라는 없었다"(517)보도한다. 이는 예루살렘 비밀회의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단순한 모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참조 게오르크 포오르, 「이스라엘 역사」, 244. 그 근거로 예레미야 29장 3절의 사절단 파송을 들고 있다.

23) 에스겔 9장은 이미 내려진 심판을 회고하면서, 그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들은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신다.’(겔 9:9bβγ)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에스겔 8장 12절과 같은 내용의 표현이다. 다만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

강성열은 이 불평에 대하여, “기원전 597년의 제 1차 포로 이후, 재난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죽이려 하시느냐고 항변하는 내용과 관련된다.”<sup>24)</sup>고 보았다. 그러나 이 불평은 기원전 597년의 재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포로기의 대 파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야훼 하나님의 범죄 고발이 “예레미야에 의한 여호야김의 폐위 선언(렘 22:13-19; 참조 애 4:13)과 관련된다는 점은 물론, 이스라엘의 전 역사, 즉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모두에서 자행했던 범죄를 회고한다<sup>25)</sup>는 점에서 포로기 전체의 대 파멸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 파멸의 원인을 야훼의 고발에서 보는 바, 자신들의 범죄에서 찾지 아니하고, 야훼의 통치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야훼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면, 그들이 대파멸과 같은 참혹한 운명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명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성찰하지 않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성전 신학(시온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로, 야훼께서 멀리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파멸의 초래되었다고 원망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편에서의 거짓된 확신은 참된 참회와 성찰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그 대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였다.<sup>26)</sup>

24) 강성열, 원글, “겔 8-11장”, 95-96.

25) 알렌, 원글, 『에스겔 상』, 313.

26) 박철우, 원글, 『에스겔』, 202.

## (5) 중간 종합

전통적인 성전 신학의 이해에 따르면,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이며, 임재의 자리이다. 보다 정확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야훼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거나 인간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뵈기 위해 1년에 3번씩 성전/성소로 나아가야 한다. 제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와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에스겔 11장 15bβ절에서 “너희는 야훼에게서 멀리 떠나라!”라는 주장은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말이다. 이러한 주장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성전 신학적 사상이 놓여져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어, 사람들이 그와 만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살고 있는 포로민들은 야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와 결별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야훼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성전 신학적 이해의 핵심이 놓여있는 것이다.

에스겔 11장 16b절(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갔던 나라들에서 잠시 동안만 성소가 될 것이다)은 바로 이러한 성전 신학적 배경 하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에스겔 11장 15bβ절(“너희는 야훼에게서 멀리 떠나라!”)과 정확히 대립된다.

야훼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 야훼의 현존의 장소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야훼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서 성전이 갖는 공간적 제한을 넘어 설 수 있다. 야훼의 임재 및 현존이 장소로부터 인격으로 옮겨옴으로서, 성전에 제한되었던 야훼의 임재와 현존의 장소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야훼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므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민들에게도 야훼는 임재하여 현존할 수

있게 되었다.<sup>27)</sup>

### 3) 히브리어 메아트(מֵאֵת)의 의미 해석

둘째, 에스겔 11장 16b절에서 해석하기에 곤란한 또 다른 문제는 히브리어 메아트(מֵאֵת)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그린베르그(M. Greenberg)는 다니엘 11장 34절의 작은 도움의 용례에 근거하여, 히브리어 메아트(מֵאֵת)를 공간적 개념을 표현하는 부사로 보아, “작은”으로 해석하여, 작은 성전으로 읽었다.<sup>28)</sup> 한편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적 개념을 표현하는 부사로 보아, “짧은”으로 해석하여, “짧은 기간 동안만”으로 읽었다. 박철우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매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점,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해석에는 예배의 중앙 통일화라는 전통과 상치되며, 또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성전이나 회당을 건립했다는 역사적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주장 - “야훼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벌하여 그들을 야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의 땅을 (죄가 없는 그들에게) 주셨다” - 에 반하여 에스겔 11장 17절에서는 “야훼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 땅을 줄 것이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전후 문맥에서 볼 때, 히브리어 메아트(מֵאֵת)를 시간적 개념을 표현하는 부사로 읽어야 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냈으나, 그 기간은 오래지 않다는 뜻으로, 즉 “짧은 기간 동안만”으

27) 이와 유사한 견해를 John F.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0), 2-3를 참조하라.

28) M. Greenberg, *읽기*, Ezekiel 1-20.

29) 박철우, *읽기*, 「에스겔」, 231.

로 읽어야 한다. 포로기적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시적인 것이다. 오히려 항구적인 삶은 귀향과 그 이후 그 땅에서의 삶이 될 것이다. 분명히 포로기적 상황은 일시적, 일회적인 현상이다.<sup>30)</sup>

## 3. 야훼의 이동성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의 무이동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타낸다. 그래서 야훼의 이동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야훼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야훼의 영광의 이동성, 하나님의 영의 이동성 및 보좌의 이동성 등이다.

### 1) 보좌의 이동성

에스겔서에는 야훼의 임재와 현존에 대한 철저하고도 다양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야훼의 보좌를 운반하는 그룹과 수레(바퀴)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에스겔 1장 4-28절; 에스겔 3장 (12-)13절; 에스겔 8장 2(-3)절; 에스겔 10장 1-22절.

#### (1) 에스겔 1장 4-28절의 해석

에스겔 1장 4-28절에서는 주로 보좌의 환상을 보도한다. 이 단락은 에스겔 1-3장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보도하는 큰 단락의 서두에 소개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예언자가 “그발 강 가”에 있음을 보도하며, 이어 그가 그곳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보도한다: 예언자(=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에스겔의 하나님 체험을 이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먼저 야훼의 말씀(יהוה רבך)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보도한다(겔

30) A. Ruwe, *읽기*, “Die Veränderung tempeltheologischer Konzepte in Ezechiel 8-11”, 10.

1:3a). 다음으로 야훼의 권능(יְהוָה יָדוּ)이 그에게 임했다고 보도한다(겔 1:3a).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표현이다.

여기에 이어 보좌의 환상 보도가 나온다(겔 1:4-28). 보좌의 환상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한 표현이다. 이 보좌 환상의 중심적 주제는 ‘이동성’이다. 이는 야훼의 현존이 성전에 묶여 있지 아니하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로서 예배의 중앙 통일화 규정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sup>31)</sup>

전통적으로 야훼의 이동성은 다양한 모티브들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신들의 이동성은 ‘폭풍’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다: 에스겔 1장 (3b-) 4절, 13-14절. 전통적으로 폭풍과 바람은 야훼의 이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시편 18편 10절에서는 야훼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라고 노래하며, 시편 104편 1-3절에서는 “야훼, 나의 하나님은 …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빛을 옷으로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라고 노래한다.

다음으로 보좌를 떠받치는 그룹의 모티브가 소개된다(겔 1:5-12, 22-25). 특이하게도 에스겔에서는 그룹이 생명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네 날개가 달린 사람모습의 형체들. 그룹의 머리는 궁창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다(참조 겔 1:22-25; 10:1). 이는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이 합류되어 있는 형태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곧 성전으로, 그 곳, 즉 성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모습이 보좌의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룹 날개의 중요한 기능은 이동성에 있다. 그룹의 날개는 보좌가 공중으로, 즉 수직으로 이동할 때 유용하다. 이들의 이동 방향은

31) 그러나 에스겔사에서 ‘예배의 중앙 통일화’의 규정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의 모티브가 소개된다(겔 1:15-21). 마차의 바퀴와 같이, 그룹의 바퀴도 보좌가 수평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때, 유용한 것이다. 그룹의 바퀴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이동 방향이 통제된다.

보좌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으나,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내가 보고 엎드려 있는 동안, 말씀하시는 이, 즉 야훼의 음성을 들렸다”라고 보도한다. 야훼께서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의 보좌 위에서 그의 뜻을 따라 자유로이 이동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종 예언자를 그의 뜻을 따라 자유로이 옮길 수 있는 분이시다.

## (2) 에스겔 3장 (12-)13절의 해석

에스겔 3장 12-13절에서도 야훼의 임재의 광경을 보도한다. 이 구절들은 예언자의 하나님 체험을 직접적으로 증언한 보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겔 11장 24절에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음을 체험했다. 그가 이러한 체험을 하는 동안, 그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께서 머무는 곳에서는 언제나 퍼져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룹들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야훼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분명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곳에서 나는 소리만을 보도한다. 야훼의 보좌에 있는 그룹의 날개의 소리가 들려왔다. 야훼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였다(참조. 겔 10:5). 그리고 보좌에는 바퀴들이 있어 그 소리들도 들려왔다. 역시 야훼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져, 예언자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야훼의 이동성을 보도한다. 이제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퍼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의 영광이 퍼져 나왔다. 그리고 야훼는 항상 그룹과 수레가 달린 보좌에 앉아 이동하였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갔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만 머무시는 야훼가 아니다.

### (3) 에스겔 8장 1b-3절의 해석

에스겔 8장 1-3절에서는 야훼의 영에 의해 예언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예언자는 야훼의 권능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한다.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불같은 모양(שֵׁן אֵשׁ כְּמוֹת כְּמוֹת)이었다. 그것의 허리 아래는 불의 모양이었고, 그것의 허리 위는 광채의 모양, 즉 번쩍이는 금속의 모양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보좌의 형상이었다. 앞서 에스겔 1장에서는 보좌에 그룹과 바퀴가 있었다고 보도하나, 여기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손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손은 예언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도구이며, 또 그를 잡고 이동하는 도구이다. 예언자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가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며,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되었다<sup>32)</sup>고 그의 체험을 고백한다.

야훼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실 때, 그와 함께 이동하였다. 야훼께서는 그의 뜻을 펴고자 하는 곳에 언제나 옮겨 다니셨다.

### (4) 에스겔 10장 1-2절의 해석

에스겔 10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보좌에 계시는 모습을 보도한다.

32) 에스겔 11장 1절 וַתֵּשֶׁב אֵת אֱלֹהֵי יְהוָה וְהָיָה אֱלֹהֵי יְהוָה בְּיְהוּדָה וְאֵת אֱלֹהֵי יְהוָה בְּיְהוּדָה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나를 -로 인도했다)  
 에스겔 8장 3절 וַתֵּשֶׁב אֵת אֱלֹהֵי יְהוָה וְהָיָה אֱלֹהֵי יְהוָה בְּיְהוּדָה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나를 -로 인도했다)  
 에스겔 43장 5절 וַתֵּשֶׁב אֵת אֱלֹהֵי יְהוָה וְהָיָה אֱלֹהֵי יְהוָה בְּיְהוּדָה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나를 -로 인도했다)

이 보좌에는 그룹들은 있으나, 바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그룹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고 보도한다. 그 궁창의 빛깔은 남보석과 같다고 했다. 이 광경은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야훼의 보좌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다. 성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땅이며, 동시에 하늘이다.

에스겔 10장 2절에서는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베옷을 입은 그의 사자에게 “보좌 아래에 달려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타는 숯불을 두 손 가득히 담아, 그 도시 위에 뿌려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야훼의 보좌에는 그룹이 있고, 그 아래에 바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에스겔 10장 8-22절의 해석

에스겔 1장에서와 같이, 에스겔 10장 8ff.절에서도 보좌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한다. 에스겔 10장 8절과 21절에서는 보좌에는 그룹이 있고,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다고 보도한다. 이 손의 기능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 정확히 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에스겔 10장 2절에서는 이 손으로 숯불을 야훼의 사자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

에스겔 10장 9-13절에서는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한다. 특이한 점은 바퀴가 황옥과 같은 빛을 띠었다는 보도이다(겔 10:9). 앞서 남보석이 하늘의 색을 나타내었다면, 황옥은 땅의 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달리는 바퀴가 보석(=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보좌는 지상과는 다른 세계를 달릴 수 있는 바퀴를 지닌 셈이다. 이 바퀴는 모두 넷으로,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 있는 마차와는 달리, 사방으로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바퀴에는 눈이 있어 달릴 때에는 하나와 같이(겔 10:10), 혼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잘 달린다(겔 10:11-12).

에스겔 10장 14-15절과 20-22절에서는 그룹의 형상에 대하여 보

도한다. 그룹은 네 개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기능은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6-16절에서는 그룹과 바퀴가 이동할 때, 혼동이나 마찰 없이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다. 이러한 조화는 야훼의 영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그의 영을 바퀴에도 보내어 조정하게 했다(겔 10:17b). 그룹과 바퀴의 조화로운 움직임은 에스겔 10장 18-19절에서 보좌의 이동 광경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 2) 야훼의 영광의 이동성

야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띤 채로 그의 사자(=예언자)나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지 않는다. 구약성서의 일부에서는 야훼의 모습 대신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에스겔서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보좌와 함께 이동하는 광경에서 주로 나타난다(겔 1:28; 8:4; 9:3; 10:4; 10:18; 10:19; 11:22; 11:23; 43:2; 43:4). 또한 야훼의 사자인 예언자를 이동시키실 때에도 야훼의 영광이 나타난다(겔 3:12; 3:23; 43:5; 44:4). 그 밖에도 야훼의 영광은 야훼께서 임재해야 하는 곳에 나타난다. 먼저 야훼께서는 성전(겔 24:21)이나 에덴동산(겔 31:18)에 임재하시기 위해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야훼께서 심판하는 곳에서도 야훼의 영광이 나타난다(겔 24:25; 26:20; 27:10; 28:22; 39:13; 39:21).

에스겔 8-11장에서는 야훼의 영광의 이동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 8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겔 8장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에스겔 8-11장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묘사한다. 먼저 에스겔 9장 3절에서는 그룹 위에 계시던 이스

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갔다고 보도한다. 둘째, 에스겔 10장 4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 위로 올라갔음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셋째, 에스겔 10장 18-19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어귀로 옮겨왔음을 보도한다. 넷째, 에스겔 11장 (22-)23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고 보도한다. 이로서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야훼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야훼의 임재와 현존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야훼의 존재 자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에스겔서에서의 영의 의미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야훼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과 새로운 생명이 약동해야 하는 곳에 나타난다. 먼저 야훼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야훼께서 보좌를 통하여 이동하실 때 나타나며(겔 1:4, 12, 20, 21; 10:17), 특히 예언자의 이동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겔 2:2; 3:12, 14, 24; 8:3; 11:1, 5, 24; 43:5).

에스겔서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보도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가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이 약동한다(겔 11:19; 18:31; 20:32; 21:7/히12;<sup>33)</sup> 36:26, 27; 37:1, 5, 6, 9, 10, 14). 에스겔서에서는 포로기와 포로후기의 중요한 신학현상인 생명운동, 즉 “죽음에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33) 21:7/히12에서 '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의미함.

#### 4. 결론

이상의 논의로부터 에스겔 11장 16b절의 메시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의 의미가 다소 분명해졌다. 이것은 바벨론에 작은 성전이나 이와 유사한 집회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의적 형식이 아닌 경건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성전이 수행한 기능과 직무를 야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린다는 의미이다. 포로기에 성전이 없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잃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성전 부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대안적 사상을 제시한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일시적으로 야훼 자신이 성전이 되는 성전 부재의 시대에 대해 신학을 에스겔은 주장한다. 전통적인 ‘성전신학’에서 주장하는 성전의 기능과 직무를 야훼의 존재에게도 돌리고 있다. 에스겔은 야훼의 통치가 성전에 묶여 있지 않고, 그의 자유로운 주권에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적 존재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 따라서 성전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고양되는 곳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곧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인간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사상을 펴고 있다. 성전은 결코 건물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한 양식일 뿐이다. 하나님 자신이 곧 성전이며, 임재의 현존인 것이다.

야훼스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며, 그래서 성전이라는 사상을 펴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에스겔과 유사하다. 그러나 에스겔은 야훼스트와는 달리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현존해 계

시는 장소인 성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지 않았다. 성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옴을 말한다. 에스겔은 결코 예배의 중앙 통일화의 규정을 저버리지 않았다. 다만 대안적 사상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

#### 5. 참고문헌

- 강성열, “겔 8-11장: 신앙적 탈선과 심판 그리고 구원,”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에스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주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89-106.
-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제 16집(2004년 4월), 215-244.
- 박철우, 「에스겔」(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밀러/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브라이트/존, 「이스라엘 역사」(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아이히로트, 「에제키엘」(국제성서주석 23;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 알렌, 레슬리 C./김경렬(옮김), 「에스겔 상」(WCC 주석; 서울 솔로몬, 2009).
- 알베르츠/강성열(옮김), 「이스라엘 종교사 I」(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원제는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ATDE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묵시’(하준 샤프)의 의미와 기능 연구 -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제20권 3호

통권 53집(2014년 9월), 198-222.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 에스겔 47장13-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제18권 2호 통권 44집(2012년 6월), 58-85.

\_\_\_\_\_, “에스겔 연구사 -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제20권 3호 통권 53집(2014년 9월), 281-324.

포오르/방석중(역), 「이스라엘 역사」(서울: 성광문화사, 1996), 237. 원제는 G. Fohrer, *Geschichte Israels*, (Heidelberg: Quelle & Meyer, 1990).

헤르만/방석중(역), 「이스라엘 역사」(서울: 성광문화사, 1991). 원제는 S. Her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Chr. Kaiser, 1973, 1980<sup>2</sup>).

Baltzer, D., *Ezechiel und Deuterocesaja*, (BZAW 121;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Fuhs H. F., *Ezechiel, 1-24*, (NEB 7; Würzburg: Echter Verlag, 1984<sup>2</sup>).

Greenberg, M.,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 Garden City/New York, 1983).

Kutsko, John F., *Between Heaven and Earth*,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0).

Ruwe, A., “Die Veränderung tempeltheologischer Konzepte in Ezechiel 8-11,” B. Ego/A. Lange(Hg.), *Gemeinde ohne Tempel. Community without Temple*,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118;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9), 3-18.

Zimmerli, W., *Ezechiel 1-24*, (BK 1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 검색어

성전 비판  
 성전 부재의 시대  
 성전 신학  
 에스겔 16장 16절  
 영이신 하나님  
 이동 가능성

## Ezekiel's Criticism on the Temple and YHWH's Being as the Temple (Ezek 8-11)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e nation Israel was destroyed by Babylon, including its templ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had a great impact on the life of the Israelites. Its significance to their daily life was extraordinary. When it was absent, from 587 to 515 BCE, a variety of groups proposed theologies alternative to it.

The present study examines a part of the theology proposed by Ezekiel that attempted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temple. Particularly the exact meaning of the message from Ezekiel 11:16b, “yet for a little while I have been a sanctuary for them in the countries where they have gone,” is examine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passage, as well as the temple theology, which contradicts Ezekiel’s, were included as part of this study. Also, it was necessary to examine the basis of Ezekiel’s theological stance of ‘figuring out the existence of God as spirit’ and the theological thought that ‘YHWH God is mobile ever.’

The ‘sanctuary’ in Ezekiel 11:16b refers to neither a small temple in Babylon nor a similar place of meeting to be set up. Also, it does not mean a form of piety, which is different from a form of ritual. In fact, it means that the functions and duties the temple used to perform traditionally are to be attributed to YHWH himself. With the absence of the temple, the meeting place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is lost, and thus the latter became lifeless. In this seriousness of the absence of the temple, Ezekiel proposed an alternative. YHWH himself temporarily becomes a temple until his glory would come back.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temple that the traditional ‘temple theology’ was charged with are all then attributed to YHWH.

The Yahwist asserts that wherever God is present is holy and thus a temple. It is quite similar to Ezekiel’s statement. Contrary to the Yahwist, however, Ezekiel did not devalue the temple, the place where YHWH God always abides. He says that the water of new life flows from the temple. Ezekiel never abandoned the command regarding centralization of worship. He rather tried to accommodate it with alternative ideas.

## Keywords

Criticism on the temple  
The temple absence era  
Temple theology  
Ezekiel 11:16  
God as Spirit  
Mobility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